

# 바다 건너 붉은 해가 뜨는 내고향 서귀포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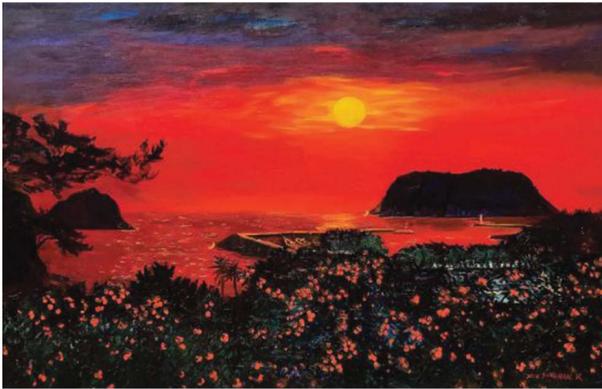
저지리 스페이스 예나르 서귀포 김성란 작가 초대 '꿈꾸는 서귀포' 연작 등 원초의 강렬한 흔적 붓질



청해 '그리운 고향'을 담아낸 화폭을 펼쳐놓고 있다.

토박이 김성란 작가에게 서귀포는 그저 아름답고 이국적인 공간으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태생적 그리움을 안은 곳이다. 아무 것도 없었던 혼돈의 세계에서 정해진 질서를 따라 하나둘 생겨난 존재의 일부다.

전시장에는 '꿈꾸는 서귀포', '아



김성란의 '꿈꾸는 서귀포'.

름다운 서귀포', '서귀포의 봄' 등이 나왔다. 노랑고, 푸르고, 붉은 화면이 각각 자리잡고 있다. 특히 '꿈꾸는 서귀포' 연작들에 나타는 바다, 오름, 나무 등은 온통 붉은 빛을 띤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해가 서귀포를 비추고 있는 까닭이다. 작가는 원초의 강렬한 흔적들을 찾아내 거침없이 붓질하

며 그 빛과 색을 기억하려 했다. '이중섭이 사랑한 아름다운 서귀포'를 펴냈던 김 작가는 '김성란이 사랑한 서귀포' 등 그동안 일곱 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는 18일 막이 올라 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개막 행사는 이달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전선회기자

## 고재만의

### 제주어기림한관

<157>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 "오- 성산 앞바당광 하늘이 어마무시하게 둘라불록 큰 절이 일인. 바당소곰 바룻게기털이 바룻더레 튀어올라왔주게. 굽수기도 매역이영 뭍도 굴이 올라오록 강이영 구경기도 굴이게. 경향단보난 어디가 하늘산디 어디가 바당산디 곱을 갈르질 못했주지. 경향난 시상이 문 어지렁했주지."

\* 제주어 풀이 \*
\*둘라불록: 달라불고.
\*바룻게기(개뚜레기, 갯뚜레기, 갯갯레기, 갯레기, 바당고기, 바당레기, 바룻레기, 바룻코기, 바룻레기) : <이름>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통틀어 일컫는 말.
\*바룻더레 튀어올라왔주게: 밖으로 튀어올라왔어.
\*굽수기(굽레기, 굽레기, 수레기, 수어기, 수해기) : <이름>돌고래.
\*뭍(뭍망, 뭍망, 뭍망, 뭍망, 뭍망) : <이름>모자반. \*곱: <이름>곱질.
\*시상이 문 어지렁했주지: 세상이 다 어지러웠지.

## 서귀포에 뜨는 여름 별 보며 평안 기원

별자리 퀴즈 대회, 반짝반짝 야광별 접기, 별과 함께 부르는 노래, 우리 역사 속 남두육성과 남국노인성 강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 거주 시민만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여행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별보기 체험이 열리는 기간 안에 남두육성을 촬영한 사진을 탐라문화유산보존회 홈페이지(www.tamracultural.jeju.net)에 올리면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있다.
윤봉택 이사장은 "단순히 별을 찾아보는 일에 그치지 않고 우리 역사 속에서 남두육성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현재와 미래에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발전해나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의 064)739-2017. 전선회기자

## 변화무쌍 바다, 검은 섬이 내게로 왔다

이중섭스튜디오 입주작가 문성운 '블랙 아일랜드' 전

귀포시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그는 바다와 늘상 마주했다. 창문 밖 건물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그 가운데 섬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다.

문 작가는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창을 열어 오랫동안 그 섬을 바라봤다. 평소 알던 섬과 바다의 색이 아니었다. 변화무쌍한 섬과 바다가 있음을 알았다. 새파란 바다와 섬과 하늘이 어느 날 검은 바다가 되었다.



문성운의 '블랙 아일랜드(Black Island)'.

어느 날은 하얀 백지처럼 보였다. 그러다 감정이 고조되며 울컥하는 순간을 느끼기도 했다.

그가 '블랙 아일랜드(Black Island)'란 이름으로 이달 22-27일 창작스튜디오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열고 제주에서 맞닥뜨린 풍경을 풀어놓는다. '블랙 아일랜드' 시리즈, '순간 드로잉', '검은 자화상' 등 제주라는 공간에서 새롭게 태어난 작품들이 나온다.
문 작가는 "그동안 작품에서 드러냈던 오늘의 무게, 시선의 이면, 가치의 각도, 실재를 찾고자 던졌던 질문들을 이번 전시에서 고스란히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선회기자 sunny@halla.com

## 문화가 쏘이

- 담화현 웅기 인문학 세미나** : 담화현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인 웅기 인문학 세미나가 이달 22일 오후 3시 제주웅기미술관에서 열린다. '집으로 들어 온 웅기'란 제목의 이번 세미나에서는 담화현스튜디오의 오랜 화두인 '웅기의 쓰임'을 웅기와 발효로 풀어낼 예정이다. 현대 생활에서 웅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무농약으로 재배된 황태살로 매실청 담그기, 발효 식품 활용하기 등으로 세미나 내용이 짜여진다. 담화현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좋다. 문의 064)748-3577.
- YMCA유스오케스트라 공연** : 제주도내 초·중·고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단장 송규진) 제38회 정기연주회가 이달 24일 오후 7시30분 제주도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제주어중 교사인 흥정도씨가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있는 YMCA유스오케스트라는 이날 오케스트라, 현악앙상블, 빅밴드, 윈드앙상블을 이뤄 케텔비의 '페르시아인 시장에서', 시벨리우스의 '핀란드어' 등을 들려준다. 제주대 음악학부에 재학하는 김군철 학생의 클라리넷 협연 무대도 마련한다.
- 동홍아트데이 이준상 공연** : 서귀포시 동홍동 행정복지센터가 주최하는 사회공헌 사업인 동홍아트데이 6월 무대는 이준상의 레인보우쇼로 꾸민다. 서커스디랩 멤버 이준상은 2016년 대만 국제 디아블로(중국 요요)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한국 최고의 디아블로 공연자다. 19일 오후 7시 동홍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디아블로, 저글링 기예동작, 마술 등으로 광대의 사랑을 담는다. 입장료 대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복나눔 기부데이'를 진행한다. 문의 064)760-4685.
- 제주빅색소폰연주단 공연** : 제9회 제주빅색소폰연주단(단장 강섭근) 정기연주회가 이달 21일 오후 7시30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한여름 밤의 힐링'이란 이름을 단 이번 연주회에서는 '아프리카인 심포니'에서 '목포의 눈물'까지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든다. 이인권 색소폰 연주자가 특별 출연한다. 고대림씨가 음악감독 겸 지휘를 맡고 있는 제주빅색소폰연주단은 2010년 창단된 동호인 단체로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과 직업이 다양한 이들이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은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 과수원, 밭, 유희부지 소유자
-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기간 지금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